

자연 성전과 선생의 가치를 깨달아라

작성일 : 2010. 8. 2. (월) 새벽 2:~3:30

작성자 : 정예인 (대전 대명 교회)

[수련회 때 월명동에 대한 깊은 사연의 말씀과
주일말씀을 통해 전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동안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시고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이번 수련회 기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고치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 예수님 말씀 *

내 말을 들어 보아라.
사람은 정신 값, 행동 값이다.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해주어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 섭리 역사는 그동안 너희 선생 통해
강한 실천으로 이룩해 온 역사이다.

너희 선생은 처음부터 나 하나만 바라보고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왔도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앞날의 희망을 품고 따라온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나 예수는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행한다.
그러하기에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오면
나와 함께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너희 선생도 월명동이라는 산골짜기를 개발하여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만약 너희 선생이 나의 말을 듣고서도
100% 실천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었을 일이었노라.
삼위가 감동으로 깨우쳐 주었어도
그 감동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몫인 것이다.
너희 선생은 월명동을 개발할 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늘이 원하는 수준만큼 행했던 자였노라.

나와 내 아버지, 성령께서는
모두에게 역사하여 깨달음과 감동으로 깨우쳐주지만
그동안 하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며 끝까지 따라와 준 자는 많지 않았도다.
하지만 너희 선생은
그 모든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뜻을 이루어 내었도다.
그래서 삼위와 함께 이루어놓은 월명동 자연성전이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이 사람도 개발하지 않고 써먹지 않으면
그냥 그 위치에서 끝나고 만다.
월명동 자연성전처럼
뜻있게 개발하여 만들고 써 먹을 때
그 가치가 빛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 선생처럼
강한 정신과 행동으로
너희 삶을 개척하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사람은 정신 값이고 행동 값이라고 한 것이로다.
자연도 모든 만물도
어떻게 개발하여 만들어 쓰느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을 멋있고 신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그와 같이 쓰이는 것이다.

월명동 자연 성전 개발사를
너희는 자세히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깨우치려 하는지 알아야 한다.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환경 탓, 여건 탓만 하지 말고
월명동 자연성전 만들 듯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다.
월명동 자연성전을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고 가꾸어 놓았어도
그 자연성전을 빛내줄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 속에 만들어진 성전을 통해
내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기뻐할 때
그것을 만든 자가 보람을 느끼고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부지런히
월명동 자연성전에 인 구름이 모여들도록
생명 구원에 앞장서길 바라노라.
나비가 날아들지 않는 꽃은

향기 없는 꽃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되듯이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 성전처럼
외롭고 쓸쓸한 성전이 어디 있겠느냐.
월명동 자연 성전은
그곳을 개발하기 위한 너희 선생과
수많은 섭리 사람들의 땀과 고생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너희 선생과 그와 함께했던 많은 자들이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행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노라.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있고 고생이 되어도
그것을 이룬 후에는 기쁨과 보람이 더 큰 것이다.

너희도 생명을 구원시키고자 할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 생명을 전도한 후에는
그 생명으로 인한 기쁨과 보람이 그 이상으로 오기에
생명을 길러야 된다는 뜻이다.
지금의 기회이다.
너희 섭리에게 주는 최고의 기회이다.
그러니 지금 이때 미련 없이 후회 없이
행해야 하는 것이다.

너희 선생도 만약 내가 시킨 그 때
월명동 개발을 시작하지 않고 부지런히 행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할 수 없었지 않았겠느냐.
그러하기에 기회가 왔을 때
미련 없이 행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수련회 기간 동안
자연성전에 얽힌 사연을 말해 주고
너희 선생에 대해 이야기해 준 것은
그와 같이 너희도 이 섭리역사
사연의 주인공들이 되라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자연성전을 개발하고 만든 너희 선생에 대해
제대로 알고 깨달으라는 것이다.
선생에 대해 모르면 이 섭리역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선생 통해
자연성전의 깊고 깊은 사연을 말해주었으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여
자연성전의 귀함과 너희 선생의 귀함을 깨닫기 바란다.
나는 너희 선생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섭리역사를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창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노라.

역사는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과정 중에 희로애락을 누리며
환란과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뜻을 이루며 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 역사요, 하늘의 길이다.
그러하기에 과정 중에
누리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역사가 지나가도 모르는 것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섭리역사는 다 과정 가운데
이루고 온 역사임을 깨닫기 바란다.

너희 선생도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어도
나의 역사의 방향을 알고
과정 가운데 행하며 뜻을 이루며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며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며 비바람, 눈보라가 쳐도
역사를 위해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너희도 역사의 뜻이 지나고
때가 다 지나간 후에 이루려 하지 말고
지금 이때 빨리 행하고 이룰 것을
속히 이루기를 바라노라.

나의 재림의 때를 맞아
미리부터 준비하고 예비하여
매일 나를 맞고 사는 자들은
그때에도 나를 맞고
휴거의 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치요, 법칙인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여라.
어서 빨리 예비하여라.
부지런히 나의 신부로서 갖추어 줄 것을 갖추고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원하는 일을 해주길 바라노라.

이 시대 가운데
내 심정 맞춰 뛰고 있는 너희 선생처럼
너희 선생 심정되어 뛰고 있는 조은 부흥 강사처럼
너희 모두도 시대의 사명자가 되어
나와 함께 생명 구원에 힘써 주길 바라노라.
사랑한다. 섭리 모두를…….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 예수이니라.

[예수님께 선생님과 함께 월명동 자연성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월명동 자연성전은 나와 너희 선생의
깊고 깊은 사연이 담긴 곳이다.
너희 선생이 어려서부터 섭리 역사를 펴오기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연이 깊은 곳이다.
그러하기에 월명동 자연성전은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가치 있는 곳이다.

다시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며
사연의 장소인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선생의 펜 끝을 통해
갖가지 자연 성전에 얹힌 사연을
하나하나 자세히 얘기해 준 것은
너희도 그와 같이 나와 이 섭리 역사에
너희 선생처럼 갖가지 사연으로 얹혀
지금까지 왔음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날 너희 선생을
월명동에서 키우고 기른 사연 속에서
내가 함께한 너희 선생의 삶을 알고 깨달으라는 것이다.

월명동 자연성전이 귀한 것은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만들고 가꾸는데 있어서
내가 너희 선생과 함께한 것이며
내 아버지와 성령께서 도우셨음이니라.
그래서 돌 하나, 나무 하나 모두 작품이며
사연의 걸작인 것이다.
돈을 주고서도 살 수 없는
1000년 역사에 남을 귀한 보물들이며
섭리의 징표인 것이다.

자연성전을 아름답고 신비하고 멋있게 가꾸어 놓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들을 멋있게 만들고 닦아
자연성전의 인간 작품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 선생이 사람들도 싫다 하고 떠났던 그 골짜기를
저렇게 만들어 지상 천국의 장소로 만들어 놓았듯이
너희도 너희 정신, 마음, 몸을 갈고 닦아
마음 천국, 육신 천국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하늘 역사는 모두 역사의 주인공들이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행함으로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낳았음을 알아야 한다.
월명동 자연성전도 그러하다.
너희 선생의 눈물과 땀방울, 기도와 몸부림,
목숨을 내걸고 행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늘의 뜻이 있어도 인간이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뜻은 결실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너희 모두도 너희 선생처럼
강한 정신과 강한 실천력을 가지고
끝까지 이 역사를 따라와야 한다.
너희 선생이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않고 행하였기에
이같이 월명동 신화를 이룩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 너희 모두도 월명동 자연성전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이 시대 하늘 역사의 기적을 남기를 바라노라.

월명동 자연성전은 이 시대 나의 몸과 같은 곳이다.
모두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써서
성약역사에 길이 남을 성전으로
더욱 가꾸고 만들기를 바라노라.
월명동 자연성전이 귀한 것처럼
나의 육신 되어 행하는 너희 선생 또한
귀한 것을 깨달아라.
가까이 있는 너희 선생 귀함과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나의 가치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 선생은 지금도 매 순간 나와 일체되어
나의 일을 행하고 있으니
너희 선생을 위해 늘 기도해주고
너희 선생이 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이 섭리가 살 길이며
너희 모두가 살 길인 것이다.
이제 월명동 자연성전과 너희 선생의 가치를 깨달았으니
섭리사 모두가 더욱 하나 되어
나의 뜻대로 행하기를 바란다.

[예수님께 앞으로 저희들이 월명동 자연성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여쭙었습니다.]

월명동 자연성전을 나의 몸처럼 귀히 여기고
늘 가꾸고 더욱 멋있게 만들어야 한다.
내가 그 곳에 더 멋진 구상과
나의 계획들이 무궁무진하니
너희 모두는 내가 시키는 대로 믿고 따라오길 바란다.
그동안 월명동 자연성전은
어떤 개인 한 사람의 힘으로 개발되어진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일하고
수고하고 몸부림쳐서 만들고 가꾸어 왔듯이
앞으로도 너희 모두가 동참하여
나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노라.

나는 더욱 너희와 함께할 것이며
월명동 자연성전을 통해
세계적인 나의 섭리 역사를 뜻있게 펼쳐 나갈 것이다.
모두 하나 되어 나와 같이 하늘 역사를 이루고
너희 선생과 일체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행하길 바라노라.
사랑한다.

월명동 자연성전 사연의 주인공과 함께한
주 예수 그리스도